

##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 메시지 2

####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성경: 요 10:11, 16, 21:15-17, 벰전 2:25, 5:4, 히 13:20, 계 1:13, 2:1, 7

- I.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부터 목양하심을 거쳐 다음 시대에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A. 부활과 승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그분의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에 대해 말하는 시편 22편과,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온 땅을 다시 얻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4편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 B.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시며,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올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 II.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 A. 요한복음은 스물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장에서 끝난다.
  - B.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요 1:14),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친다(20:22). 따라서 21장은 부록이다.
  - C. 비록 이것이 정확한 말이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 III.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 주신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이방인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아래서 한 양 떼(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A. 주님의 목양하심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 — 마 9:36, 비고 10:1-6.
  - B. 주님의 목양하심은 둘째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벰전 5:4),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 IV.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할 것을 위임하셨다.
  - A.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여러 번 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셨다 — 요 21:15-17.

- B.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이다.
- C.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6:4)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중보 기도하시고(히 7:25)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공급하시는(8:2)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이다.
- D.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 — 벧전 2:25.
  - 1.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시며 관찰하신다.
  - 2.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비교 히 13:17.
- E.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벧전 5:1-4.
- F.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V.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도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것임을 보여 준다.**

- A.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 B. 바울은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행 20:29)라고 말했다.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으며(행 20:24), 자신과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교회의 장래를 매우 염려하였다.
- C.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 하나님께서”라고 말한다.
  - 1.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 2.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

**VI.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비교 엡 3:2, 8-9, 벧전 5:10.**

**VI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와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서도 언급된다.**

- A.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만족을 위해) 양 치는 곳과 (안식을 위해)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 아 1:7상.
- B.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 아 1:8하.
- C.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 아 2:16.
- D.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 아 6:3.

**VIII.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 A.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양 떼처럼 함께 모이게 하고 싶습니다.”
- B.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해서 ‘먹이다(feed)’, ‘목양하다(shepherd)’, ‘양 떼(flock)’(10:16, 21:15-16),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또한 ‘양 떼(flock)’를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 C.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양 떼처럼 함께 모여 서로 쉬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IX.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 계 1:13, 2:7, 요 10:11, 14, 뱀전 2:25, 5:4, 히 13:20.**

- A.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이다.
  -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었지만 (출 28:4, 단 10:5), 이제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보살피신다(계 1:13).
  -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과 함께 발휘되고 유발되어 교회들을 보양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소중히 보살피신다 — 계 1:13상.
  -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적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시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신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보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소중히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양하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 4:6, 엡 4:11.
  -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 내신다 — 출 25:38.

-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똥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들(범죄와 결함과 실패와 결점들)을 잘라 내어 버리심으로, 교회들을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 C.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신성한 사랑과 함께하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 계 1:13하.
-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 2.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신다 — 계 2:1, 7, 비교 출 27:20-21, 숙 4:6, 11-14.
  -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X.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축복으로 누릴 것이다 — 사 49:10, 계 7:9-17.**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임

요한복음은 스물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장에서 끝난다. 이 책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요 1:14),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친다(20장). 따라서 21장은 부록임에 틀림없다. 비록 이것이 정확한 말이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 주신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이방인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아래서 한 양 떼(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

주님의 목양하심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마 9:36).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는 모습을 보셨다. 그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흩어졌다.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보내어지신 분께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열두 사도들을 임명하라고 말씀하셨다.

##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주님의 목양하심은 둘째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벧전 5:4),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목양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신다.

###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을 먹이고 그분의 양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셨다(요 21:15-17). 목양은 먹이는 것을 함축하지만, 또한 먹이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목양하는 것은 양 떼를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돌보는 것이다.

###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킴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이다.

### 목양에 관해 사도 바울이 한 말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것을 확증한다.

####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함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비록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긴 말씀을 전했다.

#### 사나운 이리가 양 떼를 아끼지 않음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행 20:29)라고 말했다. 이 양 떼는 교회이다.

### 양의 큰 목자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 하나님께서”라고 말한다.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

### 베드로는 주님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이러한 그분의 위임에 깊은 인상을 받음

####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말함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벧전 2:25).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것들뿐 아니라 그들의 내적 존재인 그들의 혼을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그분은 그들의 혼을 감독하심으로 그들의 혼에 관련된 것들을 돌보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분은 또

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시며 관찰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장로들에게 양 떼를 목양하도록 권면함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면하였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벧전 5:1-4).

###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아가에 있는 하나님의 양 떼의 목양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와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 서도 언급된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을 목양하신다.

### 주님께서 만족과 안식을 위해 그분의 양 떼를 먹이심

아가 1장 7절 상반절에서, 추구하는 이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만족을 위해) 양 치는 곳과 (안식을 위해)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라고 말한다.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감

목자는 추구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아 1:8하). 목자장이신 주님 아래 많은 다른 목자들이 있다. 많은 목자들은 그들이 사는 곳인 장막 곁에서 그들의 염소 새끼를 먹인다.

###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분의 양 떼를 먹임

아가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라고 말한다. 주님은 백합화 같은, 그분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목양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심으로 자라게 하신다.

###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목양이 매우 중요함

아가 6장 3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라고 말한다.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요한복음 21장은 적합하고 완전한 결말임

요한복음 21장이 없이는 요한복음이 적합하고 완전한 결말을 갖지 못한다.

###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함

내가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그곳은 작고 황량한 섬이었다. 어느 날 주님은 성도들을 방문하러 타이베이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모든 지방을 다녀 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방문 후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대만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아주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담을 받아 1949년 8월 1일의 특별 집회부터 사역을 시작

하기로 결심했다. 본토를 벗어나 대만으로 온 다른 교파들로부터 약 사오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집회 첫날에 왔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한 종류의 음식, 곧 그리스도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들 대부분은 다시 오지 않았다. 참되게 추구하는 이들만이 온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목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의 명단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찾아가 방문하게 했다. 대만에서의 일의 초기부터 우리는 목양을 실행했다. 우리가 큰 복음 집회를 열었을 때 우리는 약 오륙백 명의 명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이 합당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명단을 나누어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되고 합당한 방문자를 원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참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공허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사람들을 방문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목양의 길은 사람들로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대만에서의 교회생활은 약 삼사백 명의 믿는 이들로 시작했지만 사 년 후에는 사만 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사역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합당한 목양과 합당한 돌봄에 의해 구원 받았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1949년에 대만에 가기 전 나는 엔타이에 있었다. 나는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고 주중에는 연장한 형제와 함께 새 신자를 방문했다. 각 가정은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갈 때 그들의 식구들을 모아 놓았다. 얼마 되지 않아 엔타이에 참된 부흥이 있었다. 복음은 나 자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의해 각처에 전파되었다.

나는 또한 집회소에 부엌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교통을 위해 이삼십 명의 성도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반년이 조금 더 되어 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초청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엔타이에 있는 교회에는 적어도 오륙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이런 종류의 목양은 온 교회를 분발시켰다. 나는 장로들이 집회소를 식당으로 사용하여, 교통을 위해 성도들을 초청하기를 바란다. 장로는 목양을 목적으로 하여, 적어도 매일 한 사람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친근한 사람만이 아니라 새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해야 한다. 엔타이에 있는 부흥은 이런 종류의 목양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목양은 효과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 위대한 연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끌리고 매료되어 우리의 말을 들겠지만, 그 후에는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큰 복음 운동은 통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 이미 이것을 시험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큰 복음 집회를 열었지만 결국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이끌리지 못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집회에서 간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이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집회에 앉아 있게 해야 한다.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작은 활력 그룹뿐이며 모든 사람들이 활력 그룹 안에서 목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러한 목양하는 길보다 더 유력한 다른 길은 없다.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는 활력 그룹 안에 건강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장로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가르침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 장로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어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두 배로 존경하는 것은 신실한 장로들, 특히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질적인 공급을 가리킨다.

활력 그룹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제사장 체계요 신언자들이며, 아들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모든 아들은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즉 개인적인 아들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히 1:2).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는 말하는 이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다섯 가지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들, 곧 창조, 육체 되심, 어린양, 그 영, 사다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다른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께 대해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사다리로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신다. 그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의 아들이시다(요 3:14).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행 26:64).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로서 모든 등잔대들을 정돈하고 계시며(1:13),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은 대환난 끝 무렵에 믿는 이들을 수확하시기 위해 구름 위에 앉으실 것이다(14:14). 그분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이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마 26:64). 마태복음 25장 31절은 그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영원 안에서 그분은 이 우주의 사다리로서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요 1:51).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분발시킬 것이다. 우리는 가르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수고가 없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연인이자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신언자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말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양 떼처럼 함께 모이게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해서 ‘먹이다(feed)’, ‘목양하다(shepherd)’, ‘양 떼(flock)’,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셨다. 주님은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요 21:15, 16)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요 10:16)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양들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연결되어 한 양 떼가 되는 이방인 믿는 이들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양 떼(flock)’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하셨다. 나는 또한 이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고 싶다. 우리는 먹이고 목양하고 함께 양 떼처럼 모이기를 배워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양 떼처럼 함께 모여 서로 섞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양 떼처럼 함께 모이는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님께 굴복되고 확신을 얻고 양육을 받으며 분발될 것이다.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목양을 받고 분발될 수 있도록 함께 양 떼처럼 모여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고봉 떼 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73-182쪽)*